광주시청 김국영·고승환 남자 400m 계주 동메달

이정태·이재성과 함께 질주
38초74 한국 타이기록
아시안게임 37년 만의 메달

3일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선수들이 태극기를 펼치며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국영, 이정태, 고승환, 이재성. /연합뉴스

광주시청 김국영(32)과 고승환(26)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서 한국 타이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에서 메달을 따낸 건 37년 만이다.

한국 남자 단거리 계주팀은 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이정태(안양시청)~김국영~이재성(한국체대)~고승환 순으로 달려 38초74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3위를 기록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육상 트랙에서 아시안게임 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일궈낸 주인공은 광주시청 김국영과 고승환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가대표팀 단거리 지도자를 맡은 노승석 광주시청 코치도 있었다.

남자 계주 대표팀의 이번 성과는 피나는 훈련과 팀워크, 국내외를 오가며 실전을 거듭해온 결과다. 최근 기록에서 상승세를 보이더니 아시안게임에서 결실을 맺었다.

진천선수촌에서 힘든 훈련을 소화하며 호흡을 맞춘 대표팀은 그동안 실전을 위해 국내에선 고교생 대회에서 번외로 뛰기도 했고, 바다를 건너 일본 대회에도 참가했다.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 38초90을 뛰더니 지난달 17일에는 국내 대회에서 38초77로 시즌베스트 기록을 만들었다.

전날 열린 아시안게임 예선에서는 38초75로 다시 기록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 최근의 상승세를 보면 한국신기록도 노려볼만했다. 노승석 코치를 비롯한 대표팀 지도자들은 고민을 거듭했다.

사실 대표팀에서 앵커(마지막 주자)는 가장 빠른 선수가 맡는다. 그동안 남자 100m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이 앵커였다. 고승환이 계주 2번째 주자를 맡아 왔다. 하지만 고승환이 이번 대회 200m에 출전하게 되면서 대표팀은 계주와 200m 동시 훈련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2번 주자는 바통을 받고 달리다가 다시 3번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노 코치는 김국영을 2번 주자로, 고승환을 앵커로 배치했다. 그러면서 박원진(20·속초시청)에게도 앵커 역할을 맡겼다.

사실 올시즌 계주팀 시즌 베스트 기록은 박원진이 앵커로 나섰을 때 기록이다.

그런데 결승은 달랐다. 고승환이 200m 대회를 마친 상태였다. 기록만 놓고 봤을때도 고승환이 적격이었다. 대표팀의 목표는 한국신기록, 그리고 메달. 일단 박원진은 물론 고승환까지 5명이 모두 몸을 풀며 결승을 준비했다.

노승석 코치는 "최종 명단을 제출하기 1시간전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예선에서 뛴 박원진 대신 고승환을 출전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계주에서 막판 가속도가 필요하도 판단해 승부를 던졌다"고 고승환을 앵커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략은 성공했다. 이정태,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이 이어 달린 대표팀은 한국타이기록과 함께 37년만이자 아시안게임 역대 두 번째 남자 계주 동메달을 만들어냈다. 한국신기록이 아닌 타이기록이라는 게 아쉬울 뿐이었다.

앵커로 마지막 바통을 받아 결승선을 통과했던 고승환은 3위가 확정되자 눈물을 흘렸고, 의연하게 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뻐했던 김국영도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한국 간판 스프린터인 김국영은 지난 16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숱한 국제대회에 나섰지만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시상대에 올라섰기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김국영은 2010 광저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에 이어 네전째 출전만에 아시안게임 메달을 따냈다. 부상으로 인해 이번 대회 남자 100m에 나서지 못한 아쉬움도 훌훌 털어냈다.

김국영은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 당시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대신 계주 출전이 결정됐고, 동생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며 마지막 아시안게임을 준비했다.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에 나선 김국영은 "16년째 국가대표로 뛰고 있다. 사실 나는 잘 뛰는 선수가 아닌 운이 좋은 선수, 그리고 노력하는 선수"라며 "국제대회에 자주 출전했지만, 실패도 그만큼 많이 했다. 내가 한 실패를 우리 후배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패담을 자주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국영은 "처음 전광판을 봤을 땐 (한국 신기록인) 48초73이었다. 항의해야 할 것 같다"고 장난스럽게 말하던 김국영은 곧 진지한 표정으로 "오늘은 타이기록에서 멈췄지만, 능력 있는 우리 후배들이 곧 신기록을 세울 것이다. 앞으로는 꾸준히 아시안게임 계주에서 메달이 나오고, 단거리 개인 종목에서도 메달리스트가 나올 것"이라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과 고승환, 광주시청 선수들이 계주에서 기록을 만들어내 뿌듯하다"면서 "한국신기록도 가능했는데 정말 아쉽다. 함께 뛴 이재성이 내년에 광주시청에 입단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한국신기록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이재경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동

결승 1~6차 시기 합계 426.20점
생애 첫 출전해 메달 3개 째 수확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이재경이 3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메달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다이빙 간판 이재경(24)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생애 첫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째 메달 수확이다.

이재경은 지난 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6차 시기 합계 426.20점을 얻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번에 처음 아시안게임에 나선 이재경은 지난달 30일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와 1일 싱크로 10m 플랫폼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세 번째 메달이자 첫 개인전 메달을 손에 쥐었다.

이날 오전 예선에서 425.30점으로 2위에 오르며 결승에 진출한 이재경은 3m 스프링보드 최강자인 중국의 왕쭝위안, 정주위안, 대표팀 선배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메달 경쟁을 벌였다.

이재경은 1차 시기에 '다리를 편 채 두 팔로 다리를 잡는 파이크 자세로 세 바퀴 반을 도는' 난도 3.1의 '107B' 연기를 시도해 69.75점을 받는데 그쳐 5위로 출발했다.

2차 시기에서 '5154B' 연기를 큰 실수없이 소화해 78.20점을 챙긴 이재경은 4위로 뛰어올랐고, 5차 시기까지 4위를 달렸다.

이재경은 6차 시기에서 '수영장을 등지고 서서 앞으로 뛰어드는 인워드 동작으로 도약해 양다리를 쭉 편 채 두 팔로 다리를 잡는 파이크 자세로 두 바퀴 반을 도는' 난도 3.0의 '405B' 연기로 69.00점 얻어 역전에 성공하며 3위에 올랐다.

반면 우하람은 6차 시기에 '몸을 비트는 동작으로 세 바퀴를 돌고 파이크 자세로 두 바퀴 반을 도는' 난도 3.9의 '5156B' 연기에서 실수를 하면서 46.80점을 받는 데 그쳐 4위로 밀렸다.

이로써 이재경은 1986년 서울 대회 이선기 이후 37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 3m 스프링보드 개인전에서 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이우석-임시현, 혼성전서 양궁 첫 금메달

한일전 일본에 6-0 완승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임시현(왼쪽)과 이우석이 4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메달 수여식에서 활시위를 당기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우석(코오롱)과 임시현(한국체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양궁 혼성 단체전(혼성전)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우석과 임시현은 4일 중국 항저우의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 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양궁 혼성전 결승에서 일본의 후루카와 다카하루, 노다 사쓰키를 세트 점수 6-0(38-37 37-35 39-35)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남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은메달 2개를 따낸 이우석은 이로써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우석은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를 뽑는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회가 미뤄지면서 도쿄행이 불발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올해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여자 대표팀의 '막내 에이스' 임시현 역시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다.

임시현은 여자 단체전과 결승에 오른 여자 개인전에서 다관왕을 노린다.

한국 양궁은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혼성전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 종목이 도입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입상에 실패한 바 있다.

자카르타에서 혼성전 우승을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후루카와는 당시 우승 멤버다.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신고한 한국 양궁은 6일 8강부터 결승까지 진행하는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 사냥을 이어간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는 임시현과 더불어 안산(광주여대)이 올라가 있어 한국이 금메달과 은메달 1개씩을 예약해 둔 상태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이우석이 동메달전을 앞두고 있다.

4일 주재훈(한국수력원자력)과 소채원(현대모비스)이 혼성전 은메달을 따낸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은 5일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에 도전한다.

7일 치러지는 컴파운드 여자 개인전 결승에는 소채원이 진출해 있다.

또 남자 개인전 동메달전에서 주재훈과 양재원(상무)이 '집안싸움'을 펼친다. /연합뉴스